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별을 좋아한 소년 과학자 장영실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조선의 훌륭한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창의

핵심어 장영실, 물시계, 별자리, 조선, 노력, 과학자, 자격루, 시계, 발명가

한국문화 • **목표** : 우리나라 최초의 시계인 자격루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자격루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듣고 서로 비슷한 말의 재미를 느껴본다.
• **단어** : 스스로, 저절로
• **표현** : 스스로 시간을 알려 주었어요.
저절로 시간을 알려 주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별을 좋아한 소년 과학자 장영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시계를 보면 되지요. 시계는 친구, 부모님,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어떤 시계는 정해진 시간에 소리를 내어 알려 주기도 해요. 그러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지요. 아주 편리해요. 오늘은 조선 시대에 시계를 만든 장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장영실이 어떤 시계를 만들었는지 할머니와 함께 알아보아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별을 좋아한 소년 과학자 장영실’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시대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장영실은 신분도 낮았고, 집안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밝고 착했어요. 호기심도 많고 손재주도 좋아 무엇이든 똑딱 잘 만들곤 했어요. 특히 장영실은 밤하늘에 뜬 별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쇠돌아. 오늘 밤, 나랑 뒷산에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장영실은 친구 쇠돌이를 불렀어요. 쇠돌이는 장영실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별을 보면 하늘에서 먹을 거라도 떨어지냐?”

쇠돌이는 투덜거리면서도 장영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저기 별 좀 봐. 내가 쪽 지켜봤는데 조금씩 움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딱 일 년이 되는 거야. 어때, 신기하지?”

“별이 움직인다고? 거참 신기하네. 난 매일 똑같은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

쇠돌이는 장영실에게 물었어요.

“별을 보면 계절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거든. 봄이 언제 오는지 알면, 미리 씨를 뿌릴 준비를 할 수 있잖아.”

장영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쇠돌이에게 말했어요.

“아! 별을 보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구나.”

쇠돌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장영실은 별을 보고 사람들에게 날씨와 시간을 알려 주는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장영실 덕분에 농사를 잘 짓게 되었어요. 농사가 잘되니 다른 마을보다 더 잘사는 마을이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장영실을 불러 궁궐에서 일하게 하였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장영실을 불러 말했어요.

“이웃 나라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오너라.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 조선의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보아라.”

임금님의 도움을 받아 장영실은 이웃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조선으로 돌아온 장영실은 시계를 만들 생각에 푹 빠져 밤낮없이 고민했어요.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스스로 알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장영실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웁지, 바로 저거야!”

장영실은 무릎을 ‘탁’ 쳤어요.

장영실은 드디어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 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바로 물로 시간을 알려 주는 물시계였지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줘서 자격루라고 불러요. 장영실은 물시계를 임금님께 보여 주었어요.

“오호라, 물시계가 어떻게 저절로 시간을 알려 주는지 설명해 보아라!”

임금님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물을 담은 큰 항아리에 구멍을 내어 다른 항아리로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했사옵니다. 다른 항아리에 물이 차면 쇠구슬을 움직이게 하여 그 힘으로 인형이 종,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 주게 했사옵니다.”

장영실은 자신이 만든 물시계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 물시계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 주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봐라, 물시계를 만든 장영실에게 큰 벼슬을 내려라!”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처음에 신하들은 장영실의 신분이 낮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장영실에게 큰 벼슬을 주겠다는 임금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장영실은 큰 벼슬을 받게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낮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장영실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마침내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던 거예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장영실은 새로운 시계를 만들었어요. 어떤 시계인지 말해 볼까요? 맞아요. 스스로 시간을 알려 주는 물시계였지요.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와 비슷한 말로 ‘저절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장영실이 만든 시계 이름이 생각나나요?

그래요. 자격루예요. 자격루는 스스로 종,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였어요. 장영실은 여러 시계를 만들었어요. 물시계에 해를 달아 움직이게 하는 ‘옥루’를 만들었어요. 또 해시계인 ‘양부일구’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해, 달,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혼천의’도 만들었어요. 장영실과 그가 만든 물건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별을 좋아한 소년 과학자 장영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소년 장영실은 늦은 밤 뒷산에 오를 만큼 별을 좋아했어요. 별을 보며 꿈꿔왔던 시계를 마침내 만들었지요. 장영실이 떨어지는 비를 보며 자격루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주변을 관찰하고 불편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도 또 한 명의 장영실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